



4면
혁신도시내 아이들의
복합문화공간 생긴다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김태형 GS글로벌 대표이사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24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주)GS글로벌 새만금특장센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트남에 전북 스타트업 등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KORETOVIET센터 오픈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 이하 전북센터)는 24일 베트남 호치민 소재 사이공이노베이션 허브와 화상 개소식을 갖고 도내 스타트업 진출 거점인 KORETOVIET 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는 베트남 호치민시 과학기술국 산하 스타트업 지원 기관으로 올해 4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양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따른 상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개소한 KORETOVIET 센터는 동남아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한국의 3대 교역국인 베트남의 이점을 활용하고 양국의 스타트업 교류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전북센터가 현지 거점 전략을 제시했고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가 공간을 무상 제공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성사됐다.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는 호치민시 중앙에 위치하며 반경 1km 이내 호치민 시청, 호치민 대학교 사이공 대학교, 파이낸셜 타워와 호텔 등 비즈니스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다.

KORETOVIET 센터는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 1층 공간에 약 5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효성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 스타트업 전용 홍보관 ▲스타트업 카페 ▲화상 상담관 ▲바이어 및 투자자 라운지 등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된 개소식은 양국 기관장의 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양국 실무자와 스타트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베 글로벌 시장 진입 전략 포럼'이 함께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베트남 최초 핀테크 +부동산 투자 모델 출시기업인 FinREI JSC Roy Nguyen (로이응엔)대표가 베트남 시장진입 전략을 발표하고 전북센터는 베트남 기업의 한국 진출을 위한 도내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크 제공, 상호 합작법인 설립 지원, 지속적인 교류 활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박광진 센터장은 "동남아 최대 유망시장인 베트남을 스타트업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이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국내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에 책임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호치민 KORETOVIET 센터가 오픈함에 따라 작년 11월 하노이에 통상거점을 구축한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의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면서 "호치민-하노이로 연계되는 베트남 남북 지원체계를 통해 도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입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온라인 비즈니스 수요를 해소하고 상시 연계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양국에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약 1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KORETOVIET 센터는 한국 스타트업의 샘플 및 홍보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현지 투자자 및 바이어 약 40개사를 매칭해 화상 설명회와 수출 상담, 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베트남 호치민 KORETOVIET 센터 관련 문외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략기획팀(063-220-8949)으로 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에 대기업 투자 줄 잇는다

GS, 특장센터 건립 협약... 2023년까지 565억 투자
도내 210여개 일자리 창출도... 전북경제 도약 기대
국제물류 인프라·미래가능성 주목 입지 한층 탄탄

대기업의 새만금 투자 열기가 잇따르며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입지가 한층 탄탄해지고 있다. (주)GS글로벌이 새만금에 전기차 및 특장차 생산을 위한 특장센터 건립 추진과 SK건설의 2조원 규모 투자 계획들이 연이어 나왔다.

(주)GS글로벌의 새만금 특장센터 투자는 전북의 자동차 생태계와 연계한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전북 전략산업의 발전 속도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4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주)GS글로벌과 새만금 특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GS글로벌 김태형 대표이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과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GS글로벌은 금성산업이 전신인 GS 그룹 계열의 종합상사로 1995년부터 수입승용차 종합 물류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 BYD전기버스의 국내

총판을 시작하는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GS글로벌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1공구 221,000㎡(6만7천평)에 565억원을 투자,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등 전기차 조립생산, 각종 특장차 제조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과 수입차 PDI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GS글로벌은 올해 말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7월 착공해 2023년 6월 완공할 예정이며 공장 가동에 맞춰 전북지역 인력 210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주)GS글로벌 김태형 대표이사는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물류교류망을 갖춘 국제 물류의 거점지 역으로서의 새만금 미래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다양한 사업 수행 경험과 우수한 인재 영입을 바탕으로 새만금 특장센터를 구축해 동북아 최고의 차세대 모빌리티 거점

으로 육성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SK건설이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약 2조원의 대규모의 창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주)GS글로벌의 투자협약도 이어지면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경제의 일대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GS글로벌의 특장센터가 본격 가동하면 군산형 일자리사업,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등 전북의 자동차 생태계와 원연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출입 물류가 급증함에 따

라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활성화되고 전북지역의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들과의 협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SK에 이어 (주)GS글로벌의 투자 결정은 전북도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경제적 기대효과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면서 "(주)GS글로벌이 가진 세계적 역량과 전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새만금 성공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세계잼버리조직위 서울 사무국 가동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욱 여성가족부장관 김윤덕 국회의원, 이하 조직위)는 2023년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지구촌 청소년 대축제인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해 서울시 광화문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 7월 20일부터 사무국 운영을 시작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방

역상황을 고려, 이번에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소식을 대체했다.

조직위의 실질적 사무 집행기관인 사무국은 여성가족부, 전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계기관 파견 직원과 외부전문가 등 28명으로 꾸려졌으며 행사가 개최되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조직위는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해 ▲부지·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기구축 ▲대한민국과 전북도의 문

화·관광·산업자원을 활용한 잼버리 콘텐츠 발굴·활용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해 범국민적 축제로 승화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방법으로 잼버리 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범정부 차원의 행정, 재정적 지원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스카우트는 인종·종교·문화·이념을 뛰어넘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세계평화

에 기여하기 위한 범세계적 청소년 운동이다.

우리나라는 1922년 처음 활동을 시작했으며 한국스카우트연맹 출범 100주년(2022년)을 맞아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2023년에 개최되는 잼버리를 전북도 새만금에 유치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